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4 2022 AUGUST

사랑의열매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을 키워갑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교육·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기초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직업 교육과 노인의 자립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472억 원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2
08



지역 주민과의 따뜻한 동행

연천군 군부대 최초
착한일터 가입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육군 5사단 표범여단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4 2022 AUGUST

사랑의열매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을 키워갑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교육·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기초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직업 교육과 노인의 자립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472억 원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2
08

사랑과 나눔으로
만드는 시원한
여름 나기

취약 계층 2,000세대에
여름 나기 키트를 전달한
경남 사랑의열매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4 2022 AUGUST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을 키워갑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교육·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기초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직업 교육과 노인의 자립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472억 원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2
08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문화를 통해
나눔의 진심을 전하는
시티문화재단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4 2022 AUGUST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을 키워갑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교육·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기초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직업 교육과 노인의 자립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472억 원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의열매
ISSUE 184 2022 AUGUST



2022
08

지역사회를 지키는 튼튼한 나눔 울타리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현대삼호중공업
한울타리봉사회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om.cko



기부런으로 기부하기

#소다챌린지 #소액기부 #기부런
#소액으로다수가기부하는챌린지
#사랑의열매

ofmaily_2009



이디야에서 민초 디저트 먹고 받은
기부증.

맛난 거 먹고 기부도 하고^^
#이디야민초 #민초단 #이디야 #민트초코
#기부증 #기부 #사랑의열매

jumi101817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랑의열매.

일회용 교통카드도 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지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일회용
교통카드와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었다. 모금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다.
#사랑의열매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천 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천 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나누면요, 언젠가는 어떻게든
꼭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든요.”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황기순



2000년부터 전국 일주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황기순님은 2010년 8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
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기부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홍보대사 황기순님은 이웃을 위한
또 한 번의 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4 2022. 08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육군 5사단 표범여단
김건희 중사, 김경진 중령, 송우택 중사,
김주현 대령, 이지은 하사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8월 / 통권 18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이 영어어갑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소외 계층 및 교육 취약 청소년

대상 맞춤 진로 체험 진행하는

울산중구청청소년직업진로 체험센터

14

내 인생의 한마디

실패 딛고 지역 이끄는 기업가로 우뚝 선

(주)두성기업 윤인기 대표

18

착한 열매술랭

맛있는 낮과 밤의 제주도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가입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4기 동기회

24

착한기업

내면의 힘을 키우는

서린컴퍼니의 아름다운 후원

28

나눔 이슈

① 강학봉 전문위원의 퇴임식

②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방문

30

시원한 여름 나기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시원한 나눔

32

클라우드펀딩

무의탁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북부·강원·서울·인천·경기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4 2022. 08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전지수 이사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8월 / 통권 18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이 영글어갑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소외 계층 및 교육 취약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 체험 진행하는
울산중구청소년직업진로 체험센터

14

내 인생의 한마디

실패 딛고 지역 이끄는 기업가로 우뚝 선
(주)두성기업 윤인기 대표

18

착한 열매술랭

맛있는 낮과 밤의 제주도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가입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4기 동기회

24

착한기업

내면의 힘을 키우는
서린컴퍼니의 아름다운 후원

28

나눔 이슈

- ① 강학봉 전문위원의 퇴임식
- ②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방문

30

시원한 여름 나기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시원한 나눔

32

클라우드펀딩

무의탁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4 2022. 08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시티문화재단 최은선 과장,
윤지연 이사장, 전두용 대리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8월 / 통권 18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이 영어어갑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소외 계층 및 교육 취약 청소년
대상 맞춤 진로 체험 진행하는
울산중구청청소년직업진로 체험센터

14

내 인생의 한마디

실패 딛고 지역 이끄는 기업가로 우뚝 선
(주)두성기업 윤인기 대표

18

착한 열매솔랭

맛있는 낮과 밤의 제주도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가입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4기 동기회

24

착한기업

내면의 힘을 키우는
서린컴퍼니의 아름다운 후원

28

나눔 이슈

- ① 강학봉 전문위원의 퇴임식
- ②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방문

30

시원한 여름 나기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시원한 나눔

32

클라우드펀딩

무의탁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세종·대전·충북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4 2022. 08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현대상호중공업 한울타리봉사회
백호현 재무, 권형록 회장, 권상안 감사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8월 / 통권 18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모두의 나눔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이 영어어갑니다

10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소외 계층 및 교육 취약 청소년
대상 맞춤 진로 체험 진행하는
울산중구청청소년직업진로 체험센터

14

내 인생의 한마디

실패 딛고 지역 이끄는 기업가로 우뚝 선
(주)두성기업 윤인기 대표

18

착한 열매슬랭

맛있는 낮과 밤의 제주도 맛집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가입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4기 동기회

24

착한기업

내면의 힘을 키우는
서린컴퍼니의 아름다운 후원

28

나눔 이슈

- ① 강학봉 전문위원의 퇴임식
- ②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방문

30

시원한 여름 나기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시원한 나눔

32

클라우드펀딩

무의탁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남·제주·광주·전북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희망 가득한 배움으로 내일의 꿈이 영글어갑니다

“배움의 기쁨”이라는 말처럼 무언가를 배우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사랑의열매는 전국의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우리의 이웃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론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모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맘껏 배우며,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는 변함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클이선희 사진각나눔기관 일러스트조성



다문화청소년 재능 교육 프로젝트 우리, 희망의 셔터를 눌러요

다문화청소년에게 사진은 학교와 가정 밖에서 세상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습득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에게 같은 공감대를 가진 또래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시간은 의미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다문화청소년들이 사진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특기를 개발해 차후 사회인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은 삼성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12년부터 다문화청소년에게 사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3~18세 다문화청소년에게 3년 동안 기초·심화 단계별 사진 교육과 사진기능사 자격증 대비 수업을 지원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야외 출사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찍은 사진을 모아 매년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먼저 교육받은 다문화청소년은 만 18세 이후 사진 교육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멘토가 되는 등 배움에서 사회 환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나누는 삶의 자세도 배울 수 있다.

1 덕수궁에 출사를 나간 참여자들
2 이론 교육 후 진행되는 야외 출사
3 안드레아스 거스키 사진전 관람 모습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격차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청소년자람터 '오늘'은 2021년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비대면 교육 콘텐츠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남 영광군 청소년 30명과 함께 비대면 역량 강화 교육과 온라인 교육 공간 구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차 연도 사업에선 비대면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하고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면, 올해는 지역사회 맞춤형 마을 교육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영광역사E전시관을 활용하기 위해 영광군 문화 관광을 영상으로 담는 마을속사람책도서관, 메타버스 디자인 교육을 통해 영광역사E전시관을 구축하는 한편, 참여자가 직접 디자인과 구상을 해 홈페이지를 만든 후 이를 활용해 교육 공유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 1 영광군 문화 관광 9경을 9개 영상으로 제작하는 마을속사람책도서관
- 2 문화 관광자원 사전 답사 후 본격적인 촬영을 진행한다.
- 3 다양한 미디어 기능 교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Mini Interview



청소년자람터 '오늘' 권하은 사업담당자

영광역사E전시관을 구축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광역사E전시관을 구축하기 위해 영광군의 문화 관광 9경을 조사하며 지역을 바로 알고, 청소년이 지역에서의 가능성을 찾고 경험하며 정주 확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을 알게 되면 그 정보가 모여 지역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코딩·아두이노·시·미디어 등 다양한 기

술적 접근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서 직업 창출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요? 빠른 속도로 바뀌는 비대면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교육을 추가로 진행했지요.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공간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까지 고민해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노력합니다.

참여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역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출석률도 꽤 높습니다. 참여한 청소년은 “메타버스 제페토 공간 제작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았다”, “몰랐던 영광의 랜드마크를 알았고, 영광군 문화 관광 9경이 메타버스로 오픈된다면 캐릭터로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나요?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혁신적 지역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경험으로 전남의 낙도, 산간오지까지 교육 격차를 줄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합니다.



청년 장애인 IT 인재 육성 프로그램

최근 고용 추이를 보면 장애인의 IT 분야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학교에서 받는 교육으로는 취업에 대비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청년 장애인은 취업하기 위해 IT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에서는 SK(주) C&C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18년부터 IT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크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뉜다.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교육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반,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반, 경영 사무직원반으로 나뉘어 관련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교육을 병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장애 대학생에게 사전 교육을, 재직 장애인에게 직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년 교육 수료생의 약 90%가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업이 동참하면서 청년 장애인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



1 교육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 2 IT 기업의 취업 설명회 모습 3 중도 포기 비율이 적을 정도로 IT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Mini Interview



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
송성호 사무국장

SK(주) C&C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소셜 임팩트에 효과적인 사업을 모색, 구현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외에 '취약 계층 청소년 탄소 중립 교육'과 '취약 계층 (경력 단절 성인) IT 활용 환경 지도 강사 양성 교육'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해 ESG 실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청소년 탄소 중립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실천을 이끌어내고, 취약 계층(경력 단절 성인) IT 활용 환경 지도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경력 단절 성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업 안에도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개인, 청년 장애인과 기업 인사 담당자, 청년 장애인과 강사, 강사와 참여 기관 담당자 등 어떠한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소외되지 않는 관계가 지속되어야 사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 목표인 장애인 인재 양성을 바라보아야 좀 더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존 장애인 구직 프로그램은 IT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그 분야 교육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공공 기관의 경우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SK(주) C&C의 IT 분야 전문성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

로 청년 장애인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장애인 IT 분야에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량 강화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 전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취업 이후에도 사후 관리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는 등 단계에 따라 주기를 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주) C&C와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두 기관 모두 청년 장애인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지원 기관으로 프로그램이 청년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줍니다. SK(주) C&C는 사업의 지정 기탁자이자, 사업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함께 사업을 완수해가고 있습니다. 🍀

소외 계층 및 교육 취약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 체험 진행하는
울산중구청청소년직업진로 체험센터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환경에 따른 진로 체험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중구청청소년직업진로 체험센터가 나섰다. 진짜 미래를 계획해볼 수 있는 체험형 진로 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을 통해서.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진일보한 체험형 진로 교육

지난달 울산중구청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이하 중구청청소년진로센터)가 진행하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 수업이 한창인 울산의 한 중학교를 찾았다. 아이들은 프레디저 흥미적성검사 중이었다. 저마다 진단 키트에 스티커를 붙이고, 색연필로 문항에 체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자신에 대해 묻는 질문이 많아서일까? 검사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이후 아이들은 홀랜드 진로탐색검사, U&I진로탐색검사를 차례차례 거치며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체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중구청청소년진로센터는 2021년 11월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 사업 ‘2022 나눔과꿈’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소외 계층 및 교육 취약 계층 청소년 대상 진로 체험 교육인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을 진행하게 됐다. 2014년 개관한 중구청청소년진로센터는 청소년이 자신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울산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취약 계층 청소년 위한 발 빠른 대응

중구청청소년진로센터의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은 소외 계층에 대한 진로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교육 격차를 겪는다. 저마다의 경험치에 따라 꿈의 종류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구청청소년진로센터는 다년간 울산 지역의 진로 교육을 지원해오며, 이 같은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일반 학생과 교육 취약 계층 학생 그리고

중구청청소년진로센터의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 수업에 참가한 중학생들. 진로 교육은 다양한 역량 검사로 시작된다.





1



2



3

장애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진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연령과 개성에 맞도록 교육 내용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중구청소년진로센터는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 끝에 진학과 직업의 기로에 선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체험형 진로 교육을 완성했다. 무엇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 가정, 보호 관찰 가정, 학부모 및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가정 등으로 세분화해 재기와 자립의 계기가 되도록 배려해 호평받고 있다.

지역 간 기회 격차 해소 역할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 프로그램은 크게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역량 검사로 구성된 'PEOPLE 이 그린 꿈', 제빵이나 목공예 등 지역 내 전문 직업인의 청소년 체험장을 활용하는 'PLACE로 그린 꿈', 실제 창업가의 실무 멘토링을 통해 창업을 경험해보는 장기 프로그램 'PROGRAM과 함께 그린 꿈'으로 구성한다. 고등학생의 진로 교육은 수의사나 연구원 등 실제 직업 종사자만 강사로 초빙한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함께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가 아니어도 학교 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해 낙인 효과를 원천 차단했다. 앞으로 3년간 진행할 중구청소년진로센터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은 지역 및 계층 간 진로 체험 기회의 격차 해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및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진로 교육 업무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1 진로 교육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 2 스티커로 하는 최첨단 심리 적성 검사를 받고 있는 중학생
- 3 진로 교육 전문가가 진행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 수업 모습

SPECIAL INTERVIEW

“진로교육, 자신의 흥미와 소질 알아가는 시간이죠!”

울산중구청소년진로센터
체험센터 정미희 팀장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로 체험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 우리 센터가 울산 전 지역을 지원하다 보니 그동안 많은 데이터가 쌓였다. 그걸 토대로 보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친구가 많았다. 또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교육 복지 대상자들의 진로 교육이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흥미 위주의 놀이나 단기 이벤트성 교육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전에 다양한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기획했다.

나눔과 꿈 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와 삼성전자가 가진 인지도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다. 자체 진로 교육센터는 규모가 작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여러 협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큰 기관 및 기업과 사업을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다. 무엇보다 진로 교육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인기였는데, 요즘 아이들의 꿈이 궁금하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아이들의 꿈도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바뀌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으로 남다른 성과도 준비 중이라 들었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체험 매뉴얼은 서울시는 물론 울산시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청소년과 장애 정도에 따른 특수학교 청소년에 대한 진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우리 센터가 3년 동안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최초로 만들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학생만 되어도 진로 교육 역시 수업이라고 자거나 관심 없는 직업이면 잘 듣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까지, 비록 수업 시간에 잔다고 해도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다르더라. 재능을 발견하는 것만큼 소질과 흥미가 없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패 딛고 지역 이끄는 기업가로 우뚝 선
(주)두성기업 윤인기 대표

“나눔이 주는 전율만이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웃음부터
났다. 욕심낸 만큼 잃었기 때문이다. 나누면 커지고,
움켜쥐면 사라지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멀리 터널의
끝이 보였다. 글강은진 사진박충렬

강남역을 헤매는 대표님?

지역의 건설한 중견 건설사 2세 경영인을 만나는 자리, 꽃길만 걸어온 금수저이겠거니 선입견이 드는 건 사실이였다. 첫인상 역시 맑고 밝고 당당했다. 거기에 아너 소사이어티 고액 기부자라는 명예로운 타이틀까지 더하니 다 가진 사람 아닐까 싶었다. 그

런데 웬걸! 나눔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선뜻 뼈아픈 실패담부터 꺼내놓는 (주)두성기업 윤인기 대표다. 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무차입 경영으로 내실을 다진 회사를 물려받은 지 6년여 지났을 때 큰 위기를 맞은 것. 지역 건설사에서 전국구 건설사로 발돋움하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탓이었다. “무일푼으로 시작하신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웃음)… 시행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빌라를 지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지요. 그 후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셋 얻었겠다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승승장구하던 윤 대표는 한창 개발 붐이 일던 제주로 갔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왕창 번 돈을 가지고” 말이다. 누가 알았을까? 2세 경영인 대표가 강남역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영업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할 줄이야.

나를 일으킨 아버지의 한마디

윤인기 대표는 제주에 땅을 사고, 강남 역삼동에 있는 건물 2·3층을 통째로 빌려 홍보관을 세운 뒤 분양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사드 사태가 터졌다. “분양 사업은 처음이었어요. 분양도 분양인데, 상황이 악화되니 가지고 있던 돈이 막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고통이더라고요. 직원도 많았지만 저만큼 절박하진 않잖아요. 제가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들 붙잡고 홍보관으로 끌고 올라가곤 했죠.”

윤 대표는 당시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었다. 관련 소송만 30건이 넘을 정도였다. 마지막 합의서에



사진 속 액자의 '신앙, 감사, 도전'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준 신앙에 감사하는 마음과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를 담아 윤인기 대표가 정한 가훈이다.



도장을 찍고 모든 정산을 끝내니 무일푼이었다. “아버지께 보고하러 갔는데,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가서 ‘제가 오늘 합의 다 보고 얼마 벌고 얼마 날렸습니다’ 하니까 ‘야, 원래 우리 집 10원도 없었어. 뭐가 걱정이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던 윤인기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술과 담배에 찌든 채로 극단적인 생각도 했던 그였다. 원래 무일푼이었다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무일푼이 된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랑의열매 통해서 주세요

재기의 용기를 얻은 윤인기 대표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술과 담배를 모두 끊고, 새벽 5시면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잠드는 순간까지 회사 일에 집중했다. 남는 시간은 책을 읽거나 성당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하며 자신을 단련해갔다. 그렇게 그는 다시 자신뿐 아니라 회사도 일으켜 세웠다. 현재는 건설사를 메인으로 설계 사무실과 드론 교육원, 그리고 마스크 제조업체까지 사업을 확장해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윤인기 대표

“요즘 친구들은 면접 보러 오기 전에 회사나 대표에 대해서 검색해봅니다. 직원 채용이 더 어렵다는 지방에서, 그래도 저에 대한 기사를 보고 믿고 와주는 직원들을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을 다짐하게 됩니다.”

—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윤인기 대표는 신앙을 통해 고마움을, 나눔을 통해 감동을 배운다고 말했다.

의 가족들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현판이었다. 그 순간 윤인기 대표는 바로 기부를 결심했다. 2020년 12월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그는 현재 충북 59호 회원이다.

나눔으로써 채워지는 풍요

모태 신앙으로 시작한 윤인기 대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성당을 통해 크고 작은 기부와 봉사를 해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드러내진 않았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나눔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봉사와 기부를 하던 한 복지관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극구 사양했는데, 소장용이라 해 찍었는데... 보도가 된 거지요.(웃음) 그런데 그걸 보고 주변 지인들이 자신들도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며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윤인기 대표는 자신의 기부 소식이 누군가에게 나눔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전(前) 직원 가족의 기부에 자신도 용기를 얻은 것처럼 말이다. 윤인기 대표는 나눔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

“항상 더 벌면, 좀 더 벌면, 크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업 실패 후 이전보다 규모가 작아진 지금 저는 비로소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눌수록 몸과 마음, 그리고 재물까지 더 채워지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된다는 윤인기 대표는 이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다며 청년들에게 조언도 잊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라면서 말이다. 나눔이 가장 큰 자본금이라고 말하는 윤인기 대표의 다음 소식이 기다려진다. ♡

가 생산하는 마스크는 <스우파>로 유명한 댄서 아키가 광고하는 ‘247마스크’라는 제품이다. “코로나19 초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분들에게 마스크를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빈첸시오 무료 급식소에 연락을 했더니, 직접 주지 말고 사랑의열매를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열매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마스크 기부를 위해 사랑의열매 사무실을 방문한 윤인기 대표는 뜻밖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과거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던 시절 근무했던 직원



떠나요! 착한가게로

맛있는 낮과 밤의 제주도 맛집

“떠나요~ 제주도”,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생각만 해도 좋다.
거기에 맛까지 더해지니 천국이
따로 없다. 8월에 걸맞은 제주,
그리고 착한가게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도민 추천 브런치 카페 돈테일러익스프레스

📍 제주도 제주시 신성로 19 ☎ 0507-1333-2010
🕒 매일 10:00~18:00(연중무휴)
※ 단, 임시 휴무는 인스타그램 @dontaylor_jeju 공지

미국 오믈렛 전문점에서 직접 기술을 전수받아 진짜 미국식 오믈렛을 맛볼 수 있는 브런치 카페다. 탐스럽고 포근하며 부드러운 오믈렛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뿐 아니라 아보카도가 듬뿍 들어 있는 브런치 세트부터 로제 파스타, 스테이크 파스타와 수제 등심 치즈 돈가스까지 먹음직스러운 메뉴가 가득하다. 미국식이라 그런지 모든 메뉴가 푸짐하고 양이 많다. 가성비 좋단 말이 절로 나온다.

무엇보다 돈테일러익스프레스는 제주 사랑의열매 미혼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에 문을 연 도내 유일의 미혼모 자립 기반 지원 브런치 카페라 더욱 의미가 있다. 수익금은 미혼모의 사회적 기능 회복과 자립 기반 마련, 취업 연계와 창업 지원 등에 쓰고 있다. 브레이크타임도 없고, 배달까지 돼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해 여행객이 이용하기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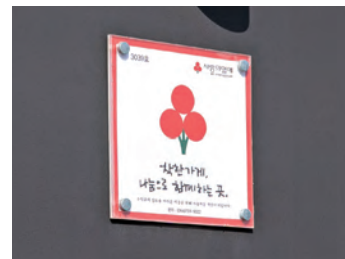


예쁜 음식이 식욕 돋우는 월정리갈비밥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46 ☎ 064-782-0430
 🕒 매일 11:00~20:00(브레이크타임 15:00~17:00)



SNS 인증샷의 절대 강자이자 제주도 갈비초밥의 원조 맛집이다. 사람 많기로 유명한 월정리 해변 뒤편에 자리한 월정리갈비밥은 제주흑돼지갈비밥, 제주매운흑돼지갈비밥, 멘보샤, 에이드 등의 메뉴가 있다. 갈비밥을 주문하면 미니 냉면을 함께 제공한다. 흑돼지 껍질의 쫄깃함까지 즐길 수 있는 갈비는 350℃ 그릴에서 직화로 맛을 낸다. 여기에 제주 딱새우와 노란 달걀 반숙, 빨간 방울토마토, 초록 파리고추를 곱명으로 올리는데, 색감의 어우러짐이 인증샷 본능은 물론이고 식욕까지 돋운다. 뚝보샤라는 애칭이 붙은 두툽한 멘보샤와 레몬·한라봉을 탐처럼 쌓아서 각각 제주타워, 레몬타워라고 이름 붙은 에이드도 주문 필수! 재료 소진으로 일찍 마감할 수 있으니 월정리갈비밥 SNS를 참고하자.



<수요미식회>가 인정한 고객식당

📍 제주도 제주시 오현길 78-6 ☎ 064-727-3002
 🕒 매일 08:00~19:00(수요일 휴무)



제주 동문시장 내에 위치한 고객식당은 유명하다는 말이 무색하다. <수요미식회>는 물론 유명 맛집 방송 프로그램에는 거의 다 소개됐을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 대표 메뉴는 갈치조림이다. 두툽한 갈치와 짭조름한 양념의 조화가 기막히며, 몽근하게 잘 조리된 큼직한 무도 맛있다. 따뜻한 흰쌀밥 위에 가시를 발라낸 갈치와 무를 올리고 양념을 조금 떠서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공기 뚝딱이다. 공깃밥 추가는 필수! 밥도둑이 따로 없다.

이 밖에도 고등어조림,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옥돔구이, 성계미역국, 보말미역국, 갈치국 등 제주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메뉴가 가득하다. 간장계장과 툇무침 등 밑반찬도 모두 직접 만든다. 🍀



우정을 나눔으로,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가입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4기 동기회

“동참해준
동기분들에게
고마움 전합니다”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17호가
탄생했다. 동기 모임으로는
최초인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4기 동기회다.

글 강은진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종건 회장은 예상 밖으로 다들 흔쾌히 동
의해주어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감동을 받
았다고 말했다. 고액 기부 상한선을 100
만 원으로 잡고 모금했는데, 많은 동기가
100만 원씩 쾌척해 놀랐다면서 말이다.

나눔으로 우정 더해

박종건 회장은 나눔으로 동기 모임의 분
위기가 더욱 좋아져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도
나중에 동참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사는 동기가 기사를 보고 연락
해 기부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번 기
부를 시작으로 다시금 나눔에 대해 생
각하게 되어 정기 기부를 시작한 동기도
있고,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동기도 있다.

“한 동기는 처음에 100만 원을 내고, 또
내고, 또 내는 거예요. 동기들과 같이 좋
은 일 하는 게 너무 기쁘다면서요. 이런
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네요. 우리 동
기들 사이에 지금 ‘그럼 나도 할게’ 같은
분위기가 자꾸 퍼지고 있어요.”

박종건 회장은 자신들의 나눔이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한 이런 실천이 모이고 모이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킨다고 믿
기에 앞으로도 계속 나눔을 이어가고 싶
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기들에
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한편, 박
종건 회장은 부산 사랑의열매 76호 아
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다.

“크고 작은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빛하늘의원 박종건 원장

동기 모임으로는 최초 가입

지난 6월,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
클럽 17호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4기 동기회. 모임
이나 단체가 3년 내 1,000만 원 이상 기
부를 통해 가입하는 나눔리더스클럽에
부산 지역에서 동기 모임으로는 첫 가입
이라 더욱 화제다. 이번 나눔은 동아대
학교 의과대학 14기 동기회 박종건 회장
(빛하늘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코

로나19로 2년 이상 중단된 모임을 재개
하면서 보다 뜻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었
기 때문이다.

“기부라는 게 개인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서 동기들끼리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조
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동안 쌓인 회
비도 꽤 됐고... 부족한 돈은 내가 내겠
다며 한번 해보자고 했지요.(웃음)”

동기들에게 혹시 부담이 될까 걱정한 박



— (왼쪽부터) 가입식에 참석한 부산시립정신병원 강승기 원장, 부산 남포속바른내과의원 김준모 원장, 부산 빛하늘의원 박종건 원장

건강한 원료로 환경까지 생각한 착한 화장품

내면의 힘을 키우는 서린컴퍼니의 아름다운 후원

서린컴퍼니는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 라운드랩(ROUND LAB)을 운영하는 화장품 전문 기업이다. 무겁고 복잡한 성분 대신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원료로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삼는다. 사회 공헌 역시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글강보라 사진 (주)서린컴퍼니

—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모습.
'깨끗한 지구 물려주기'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새겼다.



'믿고 쓰는 국민 토너'는 서린컴퍼니의 대표 제품인 '1025 독도 토너'에 붙은 애칭이다. 지구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선하고 정직한 원료로 제품을 만든다는 신념이 같은 신뢰를 만들어냈다. 서린컴퍼니는 소비자의 사랑에 보답하고, 더 큰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 사랑의열매의 중견·중소기업 고액 기부자 모임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새로운 사회 공헌 활동을 약속했다. 나눔명문기업 143호에 등재된 서린컴퍼니는 1025 독도 토너의 의미를 담아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가입식을 진행하며 1,000만 원 기부로 의미를 더했다. 가입식에 참석한 이영학 대표는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따뜻한 토닥임으로 일상에 휴식을 전하다

라운드랩의 스킨케어는 '건강한 원료들이 전하는 따뜻한 토닥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친 피부에 휴식을 선사하며 다정한 섬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일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은 사회 공헌 활동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매년 화장품 기부를 통해 미혼모 가정 및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후원하는데,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후원의 목적이다. 지난해 5월에는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해 생리대 키트 제작을 위한 물품 지원에도 참여한 바 있다.



— 나눔명문기업 143호로 등재되며 나눔 서약을 하는 모습



— 보육원에는 대용량 스킨케어, 청소년에게는 여드름성 피부 전용 라인으로 대상에 따른 상세한 후원이 이루어진다.

국내 취약 계층 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해 여드름성 피부 적합 시험을 완료한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크림도 기부했다. 사춘기 민감한 피부가 고민인 청소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한 것이다. 아동 보육 시설인 애민보육원 아이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화장품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베스트 제품인 1025 독도 토너와 1025 독도 로션, 1025 독도 클렌저를 포함해 최근 새롭게 출시한 1025 독도 선크림으로 구성된 화장품 400세트도 전달했다. 기초 라인인 1025 독도 토너와 로션의 경우 보육원 내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대용량으로 품목을 구성했으며 대상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활 밀착 지원

서린컴퍼니의 후원은 대상자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그 덕에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다. 만 18세가 되어 아동 보육 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보호종료청년의 필요에 따라 주거·교육·의료비 등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A씨는 서린컴퍼니의 생활장학금 덕에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퇴소 준비를 하면서 가전제품 가격에 놀랐다”고 전한 A 씨는 “필수 가전인 냉장고와 세탁기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 후원 덕분에 구입할 수 있었다”며 감사 후기를 남겼다. 부서관 시험을 준비 중인 B 씨 역시 생활 장학금으로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었다. “노트북 덕분에 학교 과제와 온라인 강의 수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상자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실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국내 위기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아동별 맞춤형 특기 적성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 비용 및 특기 전공 레슨비 지원 등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갯벌과 바다를 접하기 힘든 내륙권 청소년을 위해 해양갯벌

— 맹그로브 묘목을 심는 주민들 모습. 맹그로브 나무는 퇴적물 퇴적과 유속 감소 등의 효과로 해안선을 보호하고 토양침식을 막는 순기능을 한다.



여행학교도 운영했다. 라운드랩 관계자는 “아동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라며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의 우리, 내일의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다

서린컴퍼니는 자작나무 수분 라인 제품 단상자와 제품을 감싸는 종이 완충재, 종이 테이프에 친환경 FSC 인증 지류를 사용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FSC 인증 지류란 산림의 생물 다양성 유지와 생태계 보전 등 10가지 원칙과 56개 기준을 통과한 방식으로 생산한 종이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이다. 이런 친환경 패키지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환경을 생각한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눈길을 끈다.



— 산불로 황폐해진 강원도 지역을 위한 나무 심기 모금에도 동참했다.

“피부에 이로운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지키며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공헌을 펼쳐나갑니다.”

2019년 4월 강원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 옥계면의 숲 복원을 위한 ‘다시 숲 캠페인’에 1천만 원을 후원하며 나무 심기에 큰 힘을 보탤다. 환경을 생각한 활동은 해외 후원으로도 이어졌다.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가축의 방목과 농경지 확장, 댐 감 마련 등으로 벌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린컴퍼니의 지원으로 맹그로브 숲 복원 활동이 시작되었다. 자생 식물인 맹그로브 나무는 조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타 수목에 비해 4~5배 많은 탄소를 저장해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맹그로브 묘목 2만 그루를 식재하며 푸르른 나무로 생기 넘치는 숲을 염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독도 수호자, K-뷰티의 자존심을 지키다

‘독도 수호자’로 불리는 서린컴퍼니의 뜨거운 독도 사랑은 제품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1025 독도 라인’이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서린컴퍼니는 이런 특별한 인연으로 독도에 대한 정기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독도 자생식물 및 생태 환경 연구 활동에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으로 매년 영남대의 독도연구소에 3,000만 원을 기탁해 누적 발전 기금만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서린컴퍼니의 꾸준한 후원 덕에 영남대학교에 전국 최초의 독도자연생태온실이 조성되었다. 독도 자생식물들의 종자를 직접 채종해 생육·배양하며 멸종 위기 식물을 보존하고, 전국 각지로 보급해 독도 교육과 독도 사랑 확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학 대표는 “독도연구소의 교육·연구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활동”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독도 알리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K-뷰티의 자존심을 지키는 서린컴퍼니의 사회 공헌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본다. 🍀



— 서린컴퍼니의 지원으로 조성한 독도자연생태온실의 준공식 모습

강학봉 전문위원의 퇴임식

사랑의열매 역사와 함께한 열정 가득한 19년



1

강학봉 전문위원이 걸어온 길

- 2003년 9월 제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으로 입사
- 2011년 2월 ~ 2012년 4월 중앙회 배분사업본부장
- 2012년 5월 ~ 2013년 3월 인천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 2013년 4월 ~ 2014년 3월 중앙회 기획조정실장
- 2014년 4월 ~ 2017년 2월 중앙회 모금사업본부장
- 2017년 3월 ~ 2020년 2월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 2020년 3월 ~ 2022년 2월 울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1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퇴임식
2 19년 동안 나눔문화 확산에 힘쓴 강학봉 전문위원

강학봉 전문위원은 사랑의열매가 출범한 지 5년 후인 2003년에 입사했다. 국내에 공동 모금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 나눔문화 저변을 넓히고자 노력했고, 당시 막 발걸음을 뚝 사랑의열매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어느새 19년이다. 강학봉 전문위원의 퇴임식에 참석한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시기부터 함께해왔다”며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또 조흥식 회장은 사랑의열매를 대표해 그동안 헌신해온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윽고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강학봉 전문위원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나눔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의 지난 시간은 사랑의열매가 발전해온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런 노고를 알기에 사랑의열매 직원들은 그의 퇴임식에서 유독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2

사랑의열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강학봉 전문위원이 단상에 올랐다. “정년퇴임은 절대 못 할 것 같던 제가 퇴임한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퇴임 소감을 전하던 그는 지난 19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후배들을 위해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한편, “사랑의열매가 스스로 변화하는 조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전했다. 이어 “사랑의열매에서 보낸 시간을 오래 기억하며 사랑의열매의 영원한 응원자가 되겠다”는 따뜻한 소감을 마지막으로 퇴임식을 마무리했다. ❀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

“사랑의열매 성공 사례, 전 세계 리더와 공유할 것”

지난 7월 11일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WW) 안젤라 윌리엄스(Angela F. Williams) 회장이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았다. 사랑의열매 설립 초기부터 두 기관은 긴밀히 교류하며 국내 공동 모금 제도 정착에 힘썼다. 이후 2010년 공식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아태 지역 민간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사랑의열매 아태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신의 있는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 특히 이번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의 방문은 사랑의열매 아태교육센터

가 베트남 현지에서 공동 모금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격려하고자 이루어졌다.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은 사랑의열매 본관에서 기관 소개와 두 기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사랑의열매 아태교육센터로 이동했다. 1층 나눔교육관에서는 한국 전통 나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2층 명예의 전당에서는 개인 고액 기부 프로그램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에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은 “사랑의열매가 자국의 수많은 기관

전 세계 37개국 1,100여 곳에 지회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글로벌 비영리 네트워크인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United Way Worldwide, UWW)의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이 한국을 찾았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하는 등 사랑의열매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과 협력 관계를 맺고,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개인 기부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의 리더들에게도 사랑의열매 사례를 공유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

1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한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가운데) 2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에게 아너 소사이어티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1



2

폭폭 찌는 무더위 속 이웃 지키기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시원한 나눔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마저 그친 8월, 갈수록 폭염이 기세를 더해가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모두가 힘든 여름이지만, 특히 취약 계층엔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취약 계층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폭염 취약 계층에 56억 원 지원



사랑의열매 중앙회와 17개 시도 지회가 함께 56억 원 규모의 '시원한 여름 나기'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 침체에 무더운 날씨까지 더해져 고된 시간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지난해보다 14억 2,909만 원 증액한 56억 7,893만 원을 지원한다. 더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노인 등 총 4만 7,000여 명에게 냉방비와 생필품, 보양식 등을 전국의 지자체와 배분 협력 기관 2,710곳을 통해 전달한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무더위와 장맛비마저 이웃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이웃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물품 꾸러미로 무더위 극복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 14일 취약 계층 어르신께 보양식과 여름 생필품 등이 담긴 여름 물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는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7억 원의 지원금과 물품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저소득층에 전달한다. 또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꾸러미 외에도 폭염 대비 여름용품(선풍기, 쿨매트 등)을 준비하도록 혹서기 지원금을 전달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까지 챙기는 맛있는 여름 나눔

땀을 많이 흘리고 식욕을 잃기 쉬운 여름,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양식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 8일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 계층 2,00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한편 제주 사랑의열매는 여름 김치 지원 사업 행사를 개최했다. 제주 지역 봉사 단체가 담근 김치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 5,500가구에 각각 5kg씩 전달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위해



2022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지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방학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요리, 과학, 독서 등 문화 프로그램 및 정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신학기 물품 구입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학습 의욕을 고취, 학업 성취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여름방학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생수

배달 앱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는 장시간 야외 근무로 폭염에 취약해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서울시와 롯데칠성음료,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도권기상청, 사랑의열매는 이동 노동자의 폭염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수 나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롯데칠성음료가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생수 7만 5,500개를 서울 시내 총 27개소에 비치해 이동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무의탁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펀딩을 진행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7월 20일~9월 30일

목표 금액 300만원

모금 사용 월세 지원, 운전면허 교육비, 생필품 구입비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캠페인 클라우드펀딩



Q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무의탁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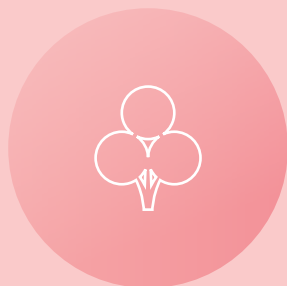
**“도와줄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는
막막한 현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 청소년'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오갈 곳 없는 상황이 되면 실수를 반복하며 재범의 길로 들어서기 쉽다는 것이지요. 조직 행동 이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처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의탁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어떨까요? 그들이 잘못된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주세요. ♡

8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북부 강원 서울 인천 경기





기부와 봉사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연천군 육군 5사단 표범여단

“지역 주민을 살피는 일,
군인의 따뜻한 의무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남다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연천군 육군 5사단 표범여단이 우리 사회에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연천군 최초, 착한일터 가입한 군부대
다양한 기부와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연천군 육군 5사단 표범여단이 <사랑의열매> 8월호 표지를 통해 이웃들에게 힘찬 인사를 건넸다.

“훌륭한 부대원들 덕분에 우리 부대가 <사랑의열매>에, 그것도 표지까지 장식하며 소개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육군 5사단 표범여단 김주현 여단장은 부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연천군 4호, 연천군 내 군부대 1호로 착한일터에 가입하며 더욱 화제가 됐다. 앞서 일부 부대원들을 중심으로 신서면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사업 ‘신서 오복주머니’ 협약을 통해 정기 기부에 참여해오고 있었다. 여기에 착한일터 가입을 계기로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기부에 동참해 지금은 그 인원

“오랜 봉사 활동으로
사복을 입고 있어도
주민들이 알아봐주실 때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 송우택 중사



Mini Interview

“나눔, 우리 부대를 따뜻하게 만들어”

육군 5사단 표범여단
김주현 여단장



봉사와 기부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더욱 깊어졌다. 나눔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걸 느끼며 자기 관리에도 더욱 힘쓴다. 여단장으로서는 고마운 부분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의 나눔이 뜻깊게 다가온다. 직업이 군인일 뿐. 집에 가면 부모이자 자식이고, 남편이자 아내다. 사회 구성원으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이 크게 늘었다. 착한일터 가입으로 모은 성금은 연천군 신서면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부대원의 자발적 참여, 큰 자랑

육군 5사단 표범여단의 나눔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재난 복구 및 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대민 지원은 기본이고, 2016년부터 부사관 150여 명은 오복주머니 복지사업을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시기별로 연탄과 김장 김치, 반찬, 삼계탕, 보행기, 내복 등 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 매달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거 시설을 개선하는 등 봉사 활동도 함께 펼쳐고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육군 5사단 표범여단의 이 같은 활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부대의 좋은 본보기가 되면서 말이다. 김주현 여단장은 “부대원들과 함께 육군 5사단 표범여단만

의 나눔문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고 말했다. 한편, 육군 5사단 표범여단은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이던 백마고지 전투, 고대산 전투 등이 벌어진 지역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육군 열쇠부대다. ♣

“6·25 참전 용사
집수리 봉사에서 느낀
몽글한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 김건희 중사



2022 배분금 130개 기관에 전달한 강원 사랑의열매

“소중한 성금, 이웃에게 잘 전달합니다”

강원 사랑의열매가 2022 배분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글강은진 사진강원 사랑의열매

사업비 5억 3,000여만 원 전달

지난 7월 5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강원 사랑의열매는 ‘2022 배분 사업 전달식 및 수행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강원 사랑의열매는 총 5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130개 기관에 전달했다. 2022 배분 사업비는 소규모 복지 기관의 배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022 소규모 복지 기관 지원 사업’ 선정 기관 43개소에 1억 6,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 긴급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2022 3차 복지현안우선문제 지원 사업’에 9개 기관을 선정해 3,600여만 원을, 아동·청



1

소년의 방학 기간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신학기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2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된 78개소에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랑의열매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복지 기관을 도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 2022 배분 사업 전달식
2 복지 기관 관계자들의 사업 수행 안내 교육 모습



2

기후변화 취약 계층 위한 강원 사랑의열매의 시원한 여름 나기 사업

이웃을 위한 건강한 여름 준비

강원 사랑의열매가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한다.
글강은진 사진강원 사랑의열매

3억 원 사업비 지원

강원 사랑의열매가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2022 기획 사업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지난 6월 28일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과 강원사회복지관협회 박현숙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 지원 전달식이 있었다. 쾌적한 제철 이불은 강원도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기

후변화 취약 계층 568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7월 5일에는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혹서기 대비 여름 키트를 강원광역푸드뱅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키트는 쿨 타월, 쿨 토시, 쿨 스카프, 삼계탕, 물냉면, 미역국, 쌀, 영양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저소득층 1,000가구에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도 2억 원 상당의 에

어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폭염 취약 계층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도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혹서기 대비 여름 키트 전달식



서울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 협약 체결한 이디야커피

‘민트초코와 함께 하는 나눔’

이디야커피가 베이커리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사회 공헌 캠페인을 추진한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민트초코 베이커리 출시 기념 나눔

서울 사랑의열매가 이디야커피와 착한소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에서 이디야커피 마케팅본부 홍재범 본부장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은 시존 한정으로 선보이는 ‘민트초코 베이커리’ 4종 출시를 기념해 사회 공헌 캠페인을 추진하며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이디야커피는 민트초코 베이커리 4종 판매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게 된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비와 교육비로 지원한다. 이디야커피 마케팅본부 홍재범 본부장은 “민트초코 베이커리를 즐기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착한소비 캠페인에도 참여 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디야커피는 고객과 함께 더욱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디야커피의 소중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착한소비는 기업이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활동이다. ❀

1 이디야커피 착한소비 협약식 모습.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이디야커피 마케팅본부 홍재범 본부장(오른쪽)
2 민트초코 베이커리 4종 출시 기념 사회 공헌 이벤트 광고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저소득 취약 계층 학생 지원하는 서울 사랑의열매

“든든하게 아침밥 먹고 공부해요!”

서울 사랑의열매가 장학금 및 조식 지원에 6억 원의 배분금을 전달했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아이들의 버팀목

지난 7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소득 취약 계층 학생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서울 초·중·고등학생 나눔캠페인과 학교 모금으로 기부한 정기 기부자 성금 등 6억 원을 저소득 취약 계층 학생 조식과 장학금 지원 배분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장학금은 서울 지역 200개 초등학교 1,000명에게, 조식은 강서양천·남부교육지원청 소속 초·중등 48개교 230명에게 지원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전달하는 장학금 및 조식 지원이 학생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서울 사랑의열매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사랑의열매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1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왼쪽)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의 저소득 취약 계층 학생 지원 기부금 전달식 기념사진
2 2022 서울 초·중·고등학생 나눔캠페인에 참여한 영창중학교 학생과 교사

인천 사랑의열매,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달식 개최

“알찬 방학으로 몸도 마음도 쑥쑥”

방학을 맞은 아동·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인천 사랑의열매가 지원에 나섰다.

글 이선희 사진 인천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배분금 전달식에 참석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한현아 사회복지사, 정규원 관장,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 최유미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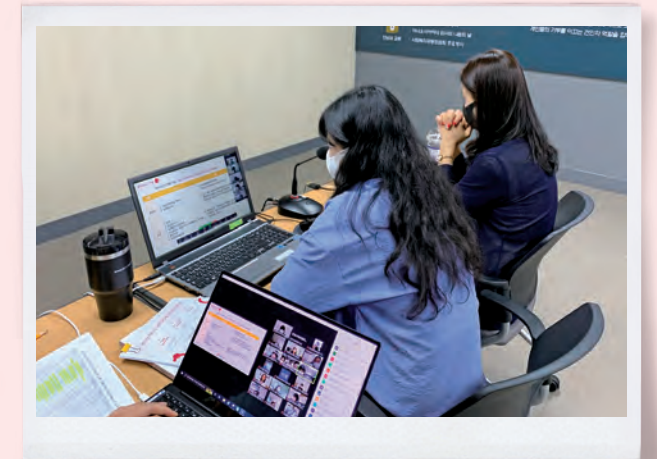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복지 기관 94개소 선정

지난 6월 22일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인천 사랑의열매는 '2022년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이하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사업 수행 및 회계 처리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아동·청소년의 방학 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신학기 물품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학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 중으로, 지난 5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 기관 94개소를 선정해 총 3억 5,822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리·과학·독서 등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서·문화적 체험 프로그램, 교복·학업 관련 도서 등 신학기 필요 물품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원한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예, 요리, 공예 등 특별 프로그램과 농촌·직업·승마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학

선정된 기관들은 2022년 6월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각종 문화·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학기 필요 물품을 구입해 아동·청소년에게 전달한다. 다음 날 진행된 사업 수행 및 회계 처리 안내 교육에는 수행 기관 94개소가 온라인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행 기관 94개소의 사업 수행 및 회계 처리 안내 교육 모습

“평소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도예, 요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쁩니다.”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정규원 관장

인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사업 수행 교육에 임했을 뿐 아니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정보를 나누며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달식에 참여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정규원 관장은 “값진 경험을 하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은 “방학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며, “인천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한 경기사랑의열매

“다시 도약하는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경기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됐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사랑의열매

아너 교류의 장, 3년 만에 재개

지난 6월 29일 이비스 엠베서더에서 '2022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다시 도약하는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란 부제 아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회원 간 교류와 함께 연간 활동 경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아너 회원 및 가족과 지인 60명, 경기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특히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모임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3년 만에 재개해 더욱 뜻깊었다. 행사는 대한고려인협회 아동합창단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현황 및 활동 보고, 2021 지역별 모임 이야기, 경기W아너 추진 계획 발표, 경기 아너 소개 챌린지와 '나의 나눔 메시지' 등으로 이어졌다.

존경받는 기부자 모임으로

특히 회원 배가를 목표로 경기W아너 확장 캠페인 실시 계획을 밝힌 경기W아너 소사이어티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지원 기관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배분 사업 지원 기관 간담회 및 봉사 활동 진행, 여성 기업 단체 협업 등을 통한 '행복여성 경기W아너펀드' 조성 등을 추가로 계획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경기W아너 소사이어티 유복순 리더는 “경기W아너는 2018년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활동해온 여성 리더 공식 모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W아너 소속감 강화와 참여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박광재 대표는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부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아너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사랑의열매에는 286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3년 만에 재개한 2022년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 기념사진



1 경기 아너 소개 챌린지
2 대한고려인협회 아동합창단 '너머'의 축하 공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66명의 신규 아너 회원이 가입해주셨다.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가 더욱 활성화돼 가장 존경받는 기부자 모임이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박광재 대표

8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2022년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 사업

“나눔으로 시원한 여름을 선사합니다”

올여름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자가 이미 지난해 4배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다. 많은 이가 힘들어하지만, 냉방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은 하루하루 힘겹게 견뎌낸다. 이에 경남 사랑의열매는 취약 계층 2,000세대에 여름용품 지원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를 도왔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 지난 7월 18일 기부자, 봉사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여름 나기 키트 제작 현장



나눔! 여름을 부탁해

경남 사랑의열매가 도내 취약 계층을 위해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 사업 '나눔! 여름을 부탁해'(이하 여름 나기 지원 사업)를 진행했다. 이번 여름 나기 지원 사업은 경남 사랑의열매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함께 기획했으며, 지난 6월 한 달간 경남도민 및 기업을 중심으로 모금한 성금과 경남 사랑의열매 사업비를 더해 총 2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여름 나기 지원 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상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회에는 폭염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지만, 3회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올해는 어르신 외에도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까지 포함했다.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여름 나기 키트 구성품도 매년 조금씩 다르다. 대상자가 가장 필요한 것을 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때문. 올해에는 여름 이불, 쿨 방석, 마사지 건, 구급함, 모기채, 손 선풍기,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부채까지 총 7종으로 구성했다.

2,000세대에 전달한 도민의 사랑

지난 7월 18일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여름 나기 키트 제작 및 전달식을 개최했다.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전지수 이사장, 경남여성리더봉사단 차경애 명예회장을 비롯해 한화디펜스 봉사단 외 지역의

봉사자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키트 제작에 앞서 호텔인터내셔널 윤영호 대표이사가 1,000만 원을, 한화디펜스에서 500만 원의 성금을 각각 전달하며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는 경남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여름 나기 키트 300세트를 제작했다. 노인과 다문

화 가정에 지원한 1,700세트는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한 총 2,000세트의 키트는 자원봉사센터와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각 대상에게 모두 전달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이번 여름용품으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기를 바란다. 🍷



— 여름 나기 키트 제작에 참여한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전지수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나눔! 여름을 부탁해!’라는 슬로건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의 나눔 에너지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총회 개최

“새로운 회장단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에 힘쓸 것”

지난 6월 22일 부산목장원에서 2022년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성우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며, 또 다른 시작을 알렸다. 글 이선희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새로운 회장단과 함께 아너소사이어티를 더욱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산아너클럽 정성우 회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왼쪽)과 부산아너클럽 5대 회장으로 연임된 정성우 회장

2년 만에 진행된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총회에 참석한 부산아너들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

부산 사랑의열매의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이하 아너클럽)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6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단순히 기부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활동을 이어오는 게 특징이다.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아동 양육 시설 정기 봉사 활동을 진행해 특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멘토링 사업,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아너클럽 회원 간 유대감과 친밀감이 남다른 만큼 매년 진행되는 아너클럽 총회에도 높은 참석률을 자랑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열리지 못한 총회가 드디어 2년 만에 개최됐다.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을 비롯해

7·8대 이장호 전 회장, 9·10대 회장인 신정택 고문, 부산아너클럽 정성우 회장, 아너클럽 1대 문종술 회장, 2·3대 박성진 회장 등 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총회에서 봉사 활동 등 각종 활동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성금 지원 내역을 공유했다. 또 회칙에 의거해 5대 회장단 선출을 진행하며, 아너클럽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부산아너클럽 5대 회장은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주)지맥스 정성우 대표의 연임으로 결정되었다. 회원들은 정성우 회장이 지난 2년간 클럽을 이끌어 73명의 아너클럽 회원 증가에 기여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정성우 회장의 부인인 박경희 씨는 물론 아들과 며느리까지 아너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며 패밀리 아너로서 지역 내 나눔을 선도한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정성우 회장은 “부산아너 회원들은 남다른 나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아너 회원 증대와 부부 아너, 젊은 세대 아너 등 다양한 분과를 신설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총회에서 부회장은 (주)한국바이오솔루션 손창우 대표이사, 감사는 세무법인텍스코리아 장선일 대표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국장과 차장, 재무 담당은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된 회장단을 중심으로 부산아너클럽이 또 어떤 나눔문화를 만들어낼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주)영풍 조재곤 대표이사

“20년간 받은 사랑,
나눔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등 신(新)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음식 한류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 중심에는 떡볶이, 부침개 등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를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주)영풍이 있다. (주)영풍 조재곤 대표이사는 이런 빛나는 성공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돌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눔에 나섰다.

클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대구 사랑의열매 김누리 사무처장, (주)영풍 조재곤 대표이사과 부인 이현주 씨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의 강자**

(주)영풍은 1993년에 설립한 영풍물산을 2014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해 주로 쌀을 사용한 제품 개발에 집중해 왔다. 가공식품 연구 개발(상온 떡볶이 제조 기술) 끝에 상품 개발에 성공하며 2021년 기준 연간 306억 원(수출 2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에서 크게 주목받는 기업이다. 떡볶이, 부침개 등을 간편 식품으로 개발해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며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일조했다. 이 같은 성공에는 (주)영풍을 설립한 조재곤 대표의 경영 철학이 한몫했다. 몸에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색소와 방부제, 화학조미료를 지양하고,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깊은 맛을 지켜오고 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나눔 실천

조재곤 대표가 '맛'만큼이나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착한 경영'의 의지다. 청년 고용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 대표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주)배관제일 배용근 대표의 아너 가입 권유를 받은 후 단숨에 가입을 결정하며 아너 가입식까지 일사천리로 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나가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 대구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203호 (주)영풍 조재곤 대표이사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 신홍식 아너로부터 나눔패를 전달받는 조재곤 대표이사(오른쪽)

행했다. 지난 3월 30일에 진행한 (주)영풍 조재곤 대표의 아너 가입식에는 부인 이현주 씨, (주)배관제일 배용근 대표, 덕수복지재단 진덕수 이사장,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 신홍식 아너, 대구 사랑의열매 김누리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나눔의 길에 들어선 그를 축하했다. 가입식에서 조재곤 대표

는 “회사를 키워오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버팀목이 되어 오늘에까지 올 수 있었다”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나가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달한 기부금은 조 대표의 바람처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성금 전달식

향기로운 나눔으로 만든 '러브 스토리 인 울산'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3년 만에 열렸다. 장미축제를 찾은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 것은 물론,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이웃에게도 사랑과 행복을 전했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울산광역시

— 지난 6월 23일에 진행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운영 부스 37개 단체의 수익금 기부 전달식



끝나지 않은 울산의 러브 스토리

2006년부터 진행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이하 장미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미축제로 꼽힌다. 매년 봄이 되면 만개한 장미를 감상하러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으로 붐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축제는 중단되었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올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지난 5월 5일간 장미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에 열린 제14회 장미축제의 주제는 '러브 스토리 인 울산'으로 장미축제를 찾은 관람객에게 사랑과 행복, 치유의 경험과 기억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그 의미는 축제 이후에도 이어졌다. 나눔을 전하며 지역 내 소외 계층에도 사랑, 행복, 치유의 경험과 기억을 선사했다. 지난 6월 23일 장미축제를 주최한 울산시와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가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969만 5,610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 기업, 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 37개 기업·단체가 방문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 나눔 부스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모두의 뜻이 모여 기부로 이어졌다.



— 전국 최대 규모의 장미축제로 꼽히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작은 정성이 모여 희망을 꽃피우길

성금 전달식에는 부스 운영 기업·단체 대표 네 곳과 주최자인 송철호 전(前) 울산광역시장,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대외협력실 김명옥 팀장, 울산 사랑의열매 박도문 회장, 성금 배분 대상 기관인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문재철 회장, 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 전광석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기업·단체 대표로 참석한 물푸레복지재단 김채규 이사장은 "3년 만에 재개한 장미축제를 즐기러 오신 시민들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며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돌려주고자 참여 기업·단체들이 부스 운영 수익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기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성금은 울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울산사회복지협의회, 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꽃은 피고 지는 게 자연의 섭리이지만, 장미축제에서 시작한 나눔의 꽃은 지역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피어 있을 듯하다. 🌸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부스 운영에 참여한 기업·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기업·단체 대표 물푸레복지재단 김채규 이사장

2022년 소중한 다수의 기부, 나눔캠페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기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등으로 많은 사람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래서 경북 사랑의열매는 작은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소중한 다수의 기부, 나눔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소다수 나눔캠페인은 각 지역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과 함께 전개한다.

소중한 다수가 모여 큰 희망으로

경북 사랑의열매는 도내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소중한 다수의 기부, 나눔캠페인(이하 소다수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중한 다수의 기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소액 정기 기부로 기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캠페인의 주요 취지다. 지난 6월 20일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출범식에서 경북 사랑의열매 이진복 나눔봉사단장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고, 나눔봉사단장으로서 나눔과 봉사를 확대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현 회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부'와 '나눔'이 주요 키워드가 됐다. 이번 소다수 캠페인을 진행하며 신규 기부자의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나눔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61일간 진행되는 소다수 캠페인에 많은 이의 관심과 사랑이 모아길 바란다. 🍀



소중한 다수의 기부, 나눔캠페인 참여 방법

자영업을 한다면 착한가게(매월 3만 원 이상)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착한가게에 동참하고 있는 곳은 전국 3만 8,079개소이며 그중 경북에는 3,990개소가 있다. 규모와 업종은 다르지만, 매월 희망을 전하며 우리 사회를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임직원이 함께 하는 착한일터(매월 5천 원 이상)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임직원 참여 나눔 프로그램으로, 직장 내 전 직원 참여하는 곳부터 소모임별 참여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경북에는 209개 기업 및 기관 임직원이 착한일터에 동참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하고 싶다면 착한가정(매월 2만 원 이상) 부부, 자녀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 기부 프로그램이다. 또한 반려동물도 어엿한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가족의 이름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착한나눔(매월 5,000원 이상) 사랑의열매에 많은 기부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결혼이나 첫돌 등 특별한 순간에 나눔을 전하는 기념일 기부,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기부(QR코드 기부)까지 나만의 기부 이야기를 담은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소다수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면 ① 경북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2022년 소중한 다수의 기부, 나눔캠페인' 신청서를 다운받는다. ② 빠진 곳 없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③ 작성한 신청서는 경북 사랑의열매 E-mail(gbchest_1004@naver.com) 또는 FAX(053-980-7809)로 접수하면 끝

8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
세종
대전
충북



문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시티문화재단

“우리의 나눔은 아이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소외된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즐겁게 뛰놀며, 마음껏 뽐내게 해준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늘 고민한다. 다양한 문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티문화재단이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충남 지역 문화복지의 선행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를 자처하고 선물을 준비한다. 성악이면 성악, 무용이면 무용, 재능을 발견하고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교실을 열고 신나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전도 개최한다. 반짝이는 기획으로 문화복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시티문화재단이다.

“사랑의열매를 통해 이웃에게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쁩니다. 무엇보다 시티문화재단은 문화 예술로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자 존재하는 만큼, 사랑의 열매를 통해 보다 많은 분과 우리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더욱 영광입니다.”

시티문화재단 윤지연 이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시티문화재단은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라는 경영 철학 아래 시티건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18년 9월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다. 특히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며, 충남 지역 문화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 진심을 전하는 방법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복지에 익숙한 우리에게 시티문화재단의 나눔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왜 문화였을까? 올해로 출범 4년 차를 맞은 시티문화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온 윤지연 이사장은 문화야말로 아이들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보육 시설 등인데요, 물질적 도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스스로 존중받고 있음을 정말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윤지연 이사장은 시티문화재단의 모든 사업은 아이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충남 사랑의열매와 함께하고 있는 시티놀이터 조성 사업이다. 시티문화재단은 빈부 격차에 따라 불평등한 아이들의 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문화 놀이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개소의 시티놀

“포기업 시티건설의 경영 철학이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입니다. 시티문화재단은 그 철학을 나눔으로 실천하고요. 언제나 아이들 마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 시티문화재단 윤지연 이사장



이터를 조성했으며, 지난 7월 흥성 구항 지역아동센터, 공주 굴렁쇠지역아동센터, 아산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놀이터

2020년에 지원받은 공주 여울지역아동센터는 놀이터는커녕 공차기할 마당조차 도로와 구분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태였다. 시티문화재단은 마당과 도로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당에는 고무 바닥을 깔고 휴식 공간도 만들었다. 또 시설 내 유리 된 중문을 추가로 설치해 선생님들이 업무 중에도 수시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뿐 아니다. 같은 해 지원받은 삼신늘푸른동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노래방을 전격적으로 설치해주기도 했다.

1 복지관 내 유휴 공간에 실내 놀이터를 조성한 시티놀이터 5호점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2 사진은 제4회 시티예술교실 작품 발표회 기념 촬영 모습. 시티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장학생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예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시티문화재단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섬세하게 반영한다. 시티문화재단의 사업이 현장에서 환영받는 이유다. “삼신늘푸른동산이 보육 시설인데도, 노래방이 얼마나 인기인지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을 초대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또 서로 순서를 정하느라 아동자치회를 통해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스스로 문제도 해결해나가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고 뿌듯했습니다.” 현장 답사까지 직접 챙기는 윤지연 이사장은 놀이터를 조성한 후 심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문화에서 교육까지, 삶의 가치 전할 것

현재 시티놀이터를 중심으로 예술로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 정서 사업, 선발한 재능 기부 장학생을 통해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젝트, 청소년의 창작 의지를 도모하는 웹툰 공모전과 비영리 기관 문화 예술 지원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시행 중인 시티문화재단은 교육으로 그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바로 시설보호청소년들이 사랑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 사업 'CITY FLY'다. 이를 위해 시티건설은 2015년 프라디움장학회를 설립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시티문화재단으로 대표되는 문화 예술과 프라디움장학회로 대표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습니



만 우리의 진심이 아이들과 도민 여러분께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통해 삶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시티문화재단의 윤지연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선하고 강한 문화의 힘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 이웃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시티문화재단의 행보가 기대된다. ❀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삼성전기 희망드림 키오스크 나눔캠페인

“임직원의 마음을 전하는 나눔의 터치”

키오스크에 사원증을 터치하면 기부할 수 있는 삼성전기의 최첨단 기부 시스템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세종사랑의열매



미래지향적 기부 문화 선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인데, 삼성전기가 훌륭하게 그것도 최첨단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바로 '2022 삼성전기 희망드림 키오스크 나눔캠페인'이다. 삼성전기는 세종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구내식당 출구에 모금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임직원은 자신의 사원증을 키오스크에 터치하면 1,000원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식이다. 모금 키오스크 스크린에는 아이의 사연이 소개되고, 각각의 사연마다 300만 원의 목표 금액 달성을 위해 마음을 모은다. 지난 4월 시작한 이후 따뜻한 의미는 물론, 쉽고 재미있는 모금 방식에 사례 홍보 1~2주면 목표 금액이 달성될 정도로 임직원의 반응은 뜨겁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기가 미래지향적인 기부 문화의 좋은 예를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삼성전기 임직원의 따뜻한 나눔의 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

1 삼성전기의 모금 키오스크
2 세종시 후원 아동을 위한 희망드림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

기업의 새로운 나눔문화를 선보이는 보쉬전장의 애경사 나눔캠페인

“기쁨도 슬픔도 이웃과 함께해요!”

개인의 애경사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방법, 보쉬전장만의 특별한 나눔을 전한다.
글강은진 사진세종사랑의열매

진화하는 나눔

세종 사랑의열매 착한일터 1호 타이틀에 빛나는 (주)보쉬전장이 새로운 나눔을 선보이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바로 '애경사 나눔캠페인'이다. 보쉬전장에는 이전부터 임직원의 결혼이나 장례 등 집안의 애경사를 치른 후, 답례의 의미로 참석해준 동료들에게 떡과 음료수 등 간식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차원에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지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답례 음식을 기부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뜻있는 임직원 개개인이나눔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애경사 나눔캠페인이란 이름 아래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애경사를 치른 임직원은 답례 음식 비용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동료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착한일터 가입부터 '사랑, 행복 더하기' 사내 봉사 단체 결성까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

작한 보쉬전장의 특별한 나눔문화는 애경사 나눔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보쉬전장에서만 현재 4명의 나눔리더와 9가구의 착한가정이 탄생했다. 남다른 나눔문화를 보여주는 보쉬전장의 다음 소식이 기다려진다. 🍀

보쉬전장 애경사 나눔캠페인을 통해 나눔리더에 가입한 직원들의 인증패 전달식



1 삼성전기의 모금 키오스크
2 세종시 후원 아동을 위한 희망드림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

창립 52주년, 상생과 나눔의 정신 실천해온 계룡건설의 반세기

“지역사회와 동행,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계룡건설의 나눔은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언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물론이다.

글강은진 사진대전 사랑의열매



1 지역 거점 병원 및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을 위한 의료진 응원 키트 전달식 **2** 희망2022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승찬 대표이사. 계룡건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매년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3** 2018년에 진행한 충남대학교 이인구인재관 개관식

대전 1호 나눔명문기업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남다른 나눔의 역사를 써온 계룡건설(대표이사 이승찬)이 우리 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은 계룡건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랑의열매를 통한 성금 기부뿐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및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한 다양한 후원, 그리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복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계룡건설의 사회 공헌 활동은 크게 ●사회 배려 계층 지원 ●미래 인재 육성 ●임직원 사랑 나눔 실천 ●사회적 위기 극복 지원 ●지역 활성화 지원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계룡건설은 2013년부터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매년 동참하며 소외 계층을 위해 성금을 전달해왔다. ‘대전 1호 나눔명문기업’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의 주인공도 계룡건설이다. 2011년부터 어려운 환경에 처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룡건설의 대표 사업 중 하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계룡건설의 지원도 돋보인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지역 인재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최신 기숙 시설 ‘이인구인재관’을 창업주故 이인구 명예회장의 모교인 충남대학교에 조성하는가 하면, 충남대학교와 건양대학교에 발전 기금을 후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주故 이인구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1992년에 설립한 ‘계룡장학재단’을 통해 약 1만 5,000여 명의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만 지금까지 총 64억여 원에 달한다. 또, 2020년 1월 대전시체육회 민선1기 회장으로 취임한 계룡건설 이승찬 대표이사는 대전지역 체육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을 기부, 대전체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 시민을 위해 기증된 유림공원도 빼놓을 수 없다.故 이인구 명예회장의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조성한 유림 공원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숲 공원으로 자리 잡으며 지금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끝전 모으기 운동’이나 신입 사원 연수 프로그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등으로 임직원의 사회 공헌 활동 참여 역시 활발하다. 이처럼 계룡건설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왔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970년 창립한 계룡건설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성장해가는 중부권 최대 건설 기업이다. ♣



계룡건설 창업주故 이인구 명예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조성한 유림공원 전경. 대전을 대표하는 도시숲 생태공원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계룡건설의 대표 사회 공헌

사회 배려 계층 지원

-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 와병 중인 예비역 위문 사업 후원
- 장애인 체육 선수 직접 채용

임직원 사랑 나눔 실천

- 임직원 끝전 모으기 & 룬마켓
- 신입 사원 사랑의 연탄 나눔

미래 인재 육성

- 충남대학교 이인구인재관 조성
- 충남대학교·건양대학교 발전 기금 후원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스마트 강의 시스템 ‘계룡건설랩’ 기부
- 한밭대학교 유림들 조성 LED 전광판 기증

사회적 위기 극복 지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 응원 키트 후원 및 성금 후원
-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구 지원
-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지역 활성화 지원

- 대전을 대표하는 유림공원 조성 기증
- 우리 상품 구매 운동 ● 지역 체육 활성화 지원

성공적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발판 된 협동화사업 ALL봄

“제도권 밖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의 따뜻한 울타리”

비제도권 홀몸 어르신과 독거 장애인을 위한
충북 사랑의열매의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화
사업 'ALL봄'이 성공리에 종료됐다.

글강은진 사진충북 사랑의열매



1



2

150여 가구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감지 센서 설치로 안전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다. 2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위한 ALL봄 협약식

민관 협업 통해 사회 관계망 강화돼

충북 사랑의열매의 2019년 전국 주제별 기획사업 'ALL(다함께)(돌)봄'(이하 ALL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ALL봄은 제천 관내 9개 동의 비제도권 사회복지 위험군 홀몸 어르신·독거 장애인을 위한 안전, 영양, 요양, 문화, 건강, 권익, 정서 등 7개 영역의 돌봄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자 민관이 협업해 통합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충북 사랑의열매로부터 3년간 3억 원을 지원받아 노인 분야 7개소, 장애인 분야 4개소, 건강 분야 4개소, 권익 분야 1개소, 사회경제 조직 3개소, 관내 대학 2개소, 사회단체 1개소, 제천시의회, 실무분과인조사연구분과(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 연구), 노인장애인분과(서비스 모니

터링), 제천시 9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과, 제천시보건소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비제도권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150여 명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4월에 진행된 사업 평가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조직 상생의 장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과 돌봄 위기 가구 돌봄 부담 해소,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 내 돌봄의 필요성 제고 등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예방 등 큰 성과

ALL봄 시행 첫해는 돌봄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및 공공 자원을 통합하는 복지영역 돌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2년 차에는 협력 기관을 확대하고 건강 영역을 추가했다. 또 마지막 3년 차는 지역 내 돌봄 프로그램 지원 체계 안정화를 위해 제천시 관련 부서 및 정책연구팀 연계로 사업의 지속성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3년간 이어온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해마다 높아져('19 74.81% → '20

78.30% → '21 80.29%) 각 기관 담당자들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연계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제도권 밖 홀몸 어르신과 1인가구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부담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 내 통합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올해 4월 진행한 ALL봄 사업 평가회



8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남
제주
광주
전북



현대삼호중공업 한울타리봉사회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지키는 튼튼한 나눔 울타리

현대삼호중공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한울타리봉사회.
2001년 결성해 지금까지 지역의 가장 낮은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를 자처해오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현대삼호중공업 한울타리봉사회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한울타리봉사회



어려울 때 어깨를 다독여준 지역사회
 현대삼호중공업 한울타리봉사회(이하 한울타리봉사회)의 시작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굴지의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였다. 당시 현대삼호중공업(옛 한라중공업) 역시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직격탄을 맞았다. 끝내 부도가 나면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때 그들의 손을 잡아준 건 지역 주민들이었다. 잘 먹어야 힘이 난다며 쌀을 보내주거나, 무와 배추 등 반찬

거리를 전해주며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9년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했고,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은 뼈를 깎는 시간을 견디며 2년 만인 200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울타리봉사회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해에 발족했다. 물론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받은 도움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주자는 취지로 직원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나눔에 나서며 처음 30명으로 시작한 봉사회 회원은 어느덧 160명에 달할 정도로 차근차근 규모를 키워왔다.

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한울타리봉사회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위치한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 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생계비를 전달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계층을 돕겠다는 처음 계획한 취지를 지키고 있다.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아이가 성년이 되는 스무 살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여섯 살부터 스무 살까지 14년을 한울타리봉사회에서 지원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단순히 성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칙에 따라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명절에는 선물 세트, 김장철에는 회원들이 함께 만든 김장 김치, 필요에 따라 가전 기기, 생필품 등을 전달한다. 그것도 봉사회 회원들이 직접 일일이 지원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쌓는다. 말 그대로 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1 한울타리봉사회 회원들이 직접 전달한 명절 선물
 2 회원들의 손맛이 더해진 김치 담그기 행사



2001년부터 전남 목포와 영암군 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 그래서일까, 한울타리봉사회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 회원들을 찾아온다. 감사 인사와 함께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겠다고 하면서, 그 모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자마자 나눔을 실천한 한울타리봉사회 회원들과 꼭 닮았다.

더 튼튼한 울타리를 위해

한울타리봉사회는 2012년부터 전남 사랑의열매에 매달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앞서 말했듯 목포시와 영암군 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10년 동안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기부액만 2억 5,628만 원(현물 포함)에 달한다. 한울타리봉사회는 전남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기 전 다른 기관을 통해 성금을 배분했다. “당시 그 기관의 행정 처리가 미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원들과 논의한 끝에 사랑의열매와 손잡게 되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내는 회비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낸 성금 100%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행정 처리도 정확하게 했어요.”

—한울타리봉사회 권형록 회장

그렇게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눔을 전한 지 9년 만에 한울타리봉사회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The Best 착한일터 전국 39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착한일터 가입 후 3년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 기부하거나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전남에는 한울타리봉사회를 비롯해 총 네 곳에 불과하다. 한울타리봉사회는 The Best 착한일터 선정을 발판 삼아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함께 겪으며 봉사회 주축이던 직원들이 하나둘 정년퇴직을 하며 떠나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후배 회원들이 물려받으며 서서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세대교체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현대삼호중공업 한울타리봉사회는 언제나 지금처럼 이웃의 든든한 울타리를 자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

경조사 답례품 대신 기부금 적립

직장 내 건강한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제주의 경조사 문화는 독특하다. 경조사를 치르면서 조문객이나 하객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는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 부담스러운 경조사 답례 문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 2022 대의원대회 기념 기부금 전달식에서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고현석 노조위원장(왼쪽)과 제주 사랑의열매 김지연 회장



경조사에 함께한 감사함을 이웃사랑으로 표현

지난 2020년 6월 30일 제주 사랑의열매와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이하 한전 제주본부)는 직장 내 경조 문화 개선을 위한 나눔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한전 제주본부 직원들이 경조사를 치르면서 축하나 조문 온 직장 동료에게 답례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해당 금액으로 감사 기금을 조성해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기탁된 성금은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나눔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직원의 자발적 참여 이어져

협약식 당일 직원 6명이 마련한 감사 기금 653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조직 내 건전한 경조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덕분일까, 한전 제주본부 직원들 사이에 선 감사기금 기부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경조사가 있는 직원 중 80%가 동참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6월에도 직원 15명이 1년 동안 마련한 1,938만 원을 기탁하는 등 현재까지 적립한 감사 기금은 3,7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전 제주본부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행사 당시 216만 원 등 여러 행사비용 절감액을 기부하는 등 사내 나눔문화가 정착되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며 좀 더 나은 제주를 만드는 데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 🍀

“나눔의 세상을 열어가는 데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구성원들도 함께하겠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고현석 노조위원장

Mini Interview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고현석 노조위원장



어떻게 노조가 함께 직장 내 나눔문화 개선에 나서게 되었는지요? 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적 조직 문화 개선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 고유의 경조사 답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답례품을 제공하는

대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지”는 제안을 시작으로, 감사 기금을 조성해 기부하기로 노사가 결의했습니다. 조직 내에 확산하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직장 내 자발적 기부와 나눔문화가 정착되었고, 지역 내에서 건강한 나눔문화의 선례가 된 것 같아 긍지를 느낍니다.

직장 내 나눔문화 확산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전 제주본부는 지역 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조사 답례 문화 개선 활동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새로운 기부 문화로의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기쁨과 보람은 구성원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나눔 활동 방향이 궁금합니다. 우리 한전 제주본부 구성원들도 나눔의 세상을 열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기념품을 대신한 기념일 기부와 특정 행사 경비를 절감한 이벤트 기부는 물론, 책상 서랍속 동전이나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을 모은 한뼘모아 기부 등 일상 속 기부와 나눔문화를 실천해가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이 건강한 나눔문화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가진 자보다 나누는 자가 존경받고, 스펙보다는 봉사 실적이 존중받는 앞으로의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작은 나눔과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다스코(주)의 넓고 깊은 나눔 이야기



다스코(주)의 나눔 활동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2002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오랜 기간 나눔을 이어왔으며, 장학 사업부터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다스코(주)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광주 사랑의열매



1 다스코(주) 한상원 대표와 그의 아내 박일선 씨의 아너 소사이티 공동 가입식 2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전하는 따뜻한 손길
1996년에 창립한 다스코(주)는 도로 안전시설물 제조업에서 시작해 안전시설 분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났다. 장인 정신과 사명감으로 정진하며 차근차근 사업을 확장해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금속 구조물 제조까지 맡으며 독보적 위치를 선점했다.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선도 기업인 것은 물론, 아낌없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2002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사랑의열매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면서부터 나눔 활동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기부금만 3억 4,420만 원에 달한다. 해당 기부금은 광주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저소득층 학생

의 장학금과 생계비, 포항 지진 피해 세대 생활 복귀 지원비,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파킨슨병 환우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며 광주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살아야

다스코(주)의 사회 공헌과 별개로 한상원 대표의 개인적 나눔 활동도 활발하다. 광주 사랑의열매와 희망나눔캠페인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 2016년 아내 박일선 씨와 아너 동반 가입에 이어, 2018년에는 광주 사랑의열매 11대·12대 회장을 연임하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일할 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

고자 노력했다. 특히 2019년 '파킨슨 환우 재활 프로그램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합 모금 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참여한 그는 파킨슨병 환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곧바로 다스코(주) 회사 차원에서 정기 기부를 진행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빠른 실행력 덕분에 파킨슨병 환우는 물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등 지역 복지 발전에도 큰 힘이 되었다.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의 인생 철학에 따라 앞으로도 한상원 대표의 나눔은 계속될 전망이다. ♡

“나의 성공은 이웃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기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곳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스코(주) 한상원 대표이사



광주 사랑의열매 11대·12대 회장직을 맡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상원 대표

행복한 가치 창출을 위한 끝없는 나눔

제너럴바이오(주)의 아름다운 동행 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서 생긴 오해인 듯하다. 사회적 기업인 제너럴바이오(주)는 이런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어 탄탄한 강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클이선희 사진전북 사랑의열매

— 2021년 사랑의열매 대상을 수상한 지역의 건설한 사회적 기업인 제너럴바이오(주)



오늘날의 성공은 지역사회 덕분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제너럴바이오(주) (대표이사 서정훈, 정석근)는 2007년 창립했다. 당시엔 초기 원료 제조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전북을 대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자 바이오 기술 벤처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제너럴바이오(주)의 눈부신 성장이 반가운 이유는 따로 있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표방하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정훈 대표는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도움과 관심 덕분이라 여긴다. 받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주고자 비영리 재단법인까지 설립해 체계적인 사회 공헌을 진행 중이다. 영리 회사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공헌 부문에도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이유

제너럴바이오(주)는 2013년부터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도내 저소득 가정 및 소규모 사회복지 기관을 위한 생필품 전달 등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13억 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및 기관에 손 소독제 8만 개를 지역별로 기부했으며, 2020년 섬진강댐 범람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위해 자



1



2

1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한 생필품 구호 키트
2 소외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전달식

체적으로 구호 물품 세트를 구성해 발 빠르게 전달했다. 이처럼 제너럴바이오(주)는 사회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항상 지역사회에 귀를 기울이며 살뜰하게 살핀다. 더욱이 서정훈 대표는 2018년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사실, 제너럴바이오(주)의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가치 창출'이란 기업이념이 더 이상 이념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보여준 나눔 활동 궤적을 되짚어볼수록 제너럴바이오(주)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언제나 지금처럼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행복한 가치를 창출하는 제너럴바이오(주)가 되었으면 한다. 🍀

“기부를 큰 헌신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명예스러운 실천이라 생각하는 문화가 이 사회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 제너럴바이오(주) 서정훈 대표이사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2521호(경기 241호)



전태식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목사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전국 2913호(전북 87호)



최현옥
“아너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의 나눔이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2920호(부산 265호)



박정하 (주)해안이앤디 명예회장
“실천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전국 2921호(부산 266호)



이영애 (주)해안이앤디 대표이사
“나눔은 함께함으로써 따뜻함이 더해집니다.”

전국 2922호(부산 267호)



박선민 (주)해안이앤디 상무
“나눔으로 따뜻한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전국 2923호(부산 268호)



박건우 (주)해안이앤디 사내이사
“나눔은 더불어 살아가며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전국 2926호(광주 1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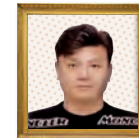
박수범 골드종합건설(주) 이사
“부모님께서 아너 회원으로서 늘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 이웃을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국 2933호(대전 99호)



엄태현 (주)인아트 대표이사
“지속 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해.”

전국 2935호(부산 270호)



이인수 연창수산 대표
“성실하고 겸손하겠습니다.”

전국 2936호(중앙 367호)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눔은 행복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 이상호 서호전기(주) 회장, 임성혜 강원 박은주 추암횃집 대표

중앙회



2022년 신규 기획 사업에 138억 원 배분
 사랑의열매가 2022년 신규 기획 사업에 선정된 전국 48개 기관 및 시설에 총 13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난 7월 12일 전달식을 진행하고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관 간 교류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신규 기획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공적 영역의 도움을 받기 힘든 이웃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정보나 관계의 부재를 겪는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대응 체계 구축 사업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생계 등에 집중하기 힘든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사업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 체계 구축 사업 ▲시설이나 병원에서 퇴소해 지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 사업 등 4개 주제로 진행한다. 공모에 선정된 48개 기관의 세부 사업은 8월부터 최대 3년간 전국에서 실시한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함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회의원, 아너 가입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사랑의열매 4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성중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박성중 의원과 사랑의열매는 2009년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서울시 서초구 구청장이던 그가 노인복지관과 전문 요양원 건립을 잇달아 추진해 노인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 공로로 효령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1,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2011년 1월 사랑의열매 4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성중 의원은 기부자 편의성과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기부 정보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조직 쇄신에 힘썼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인 정기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월 100만 원을 기부하고, 퇴임 이후엔 저서 <나눔디자인>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2016년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매월 세비 100만 원을 정기 기부하며 꾸준히 나눔을 이어갔다. 박성중 의원은 “나눔은 마음에 희망을 심는 일”이라며 “힘이 닿는 날까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



대원제약, 사랑의 의약품 6,000여 개 기부
 대원제약이 기능무력증 보조치료제인 ‘액티브원’ 6,000여 개, 총 9,3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해당 제품은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 가정, 코로나19 위기 가정 등에 전달했다. 대원제약 OTC사업부 이정희 이사는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배분 사업 설명회 개최
 지난 7월 6일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3년 배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설명회에는 많은 사회복지 기관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 사랑의열매의 사업 방향을 반영한 SDG&ESG 특강 및 프러포절(proposal) 작성 교육, 2023년 신청 사업과 2022년 신규 기획 사업 안내 등을 실시했다.

부산



(주)골든블루,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경영 실천
 국내 정통 위스키 1등 기업인 (주)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가 1억 원을 기부하고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4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깨끗한 부산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동욱 대표는 “사회에서 얻은 이익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동부영업센터, 착한일터 가입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동부영업센터 임직원이 함께 활동하는 행복나눔봉사단(봉사단장 황윤형)이 부산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성금은 금정구 관내 사회복지관을 통해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황윤형 봉사단장은 “앞으로 봉사과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



율하재활의학과의원 김건구 원장, 나눔리더 가입
 율하재활의학과의원 김건구 원장이 대구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85호로 가입했다. 김건구 원장은 앞서 대구 사랑의열매 착한병원에 가입해 매월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중이다. 그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며 “꼭 필요한 곳에 전해져 희망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배쓰프로젝트, 이웃사랑 화장품 기탁
 프리미엄 입욕제 제조 회사 (주)배쓰프로젝트(대표이사 박종원)가 대구 사랑의열매에 2,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보디 워시 및 보디로션)을 기탁했다. 화장품은 대구 지역 취약 계층 여성들에게 전달했다. 박종원 대표이사는 “나눔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인화회, 보훈 가정 지원금 1,000만 원 전달
 인천 지역 공공 기관 및 주요 단체장과 기업체 대표 등 저명인사들의 모임인 인화회(회장 심재선)가 인천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인천보훈지청을 통해 보훈 가정에 지원했다. 심재선 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나눔을 실천했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랑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인천 사랑의열매가 사랑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폭염에 대비해 작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총 3억 3,000만 원을 인천 지역 69개 기관에 전달했으며, 쪽방 거주민과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총 8,144세대에 냉방용품과 건강식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광주



(유)건영크린텍, 나눔유공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
 방역·의료·산업용 마스크를 제조 및 공급하는 (유)건영크린텍(대표 김범택, 김혜진)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나눔유공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건영크린텍은 광주 사랑의열매와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2020년부터 6억 9,00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탁했으며, 공적 마스크 제조 및 유통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섰다.



2023년 배분사업 설명회 성료
 광주 사랑의열매가 광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랑의열매 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트렌드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2023년 배분사업과 광주 사랑의열매의 신청사업 및 기획사업 등을 안내했다.

대전



대전아너 회원들, 경로 식당 이용 어르신에게 삼계탕 대접
 대전 아너 소사이터티 클럽(회장 이승호) 회원들이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3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또한 몸이 불편해 식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 삼계탕 도시락을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승호 회장은 “코로나19로 봉사 활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어 아쉬웠는데, 다시 함께하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주)인아트 임태헌 대표, 아너 가입
 (주)인아트 임태헌 대표가 대전 사랑의열매 99호 아너로 가입했다. 가구 판매 회사인 (주)인아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기부하며 오랜 기간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임태헌 대표는 “올바르게 만든 좋은 가구를 고객에게 보답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공간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울산



울산남구청, 청년 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울산 사랑의열매가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와 '남구품애(愛) 청년애(愛)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정신 건강 고위험 군인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의료·일자리·교육 등 서비스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차별화한 지원으로 청년들이 사회동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시각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대표이사 백승훈)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시각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코로나 불루를 극복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보조 공학 기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는 매년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경기



서신철 소방령· 이재성 소방장, 나눔리더 가입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서신철 소방령과 이재성 소방장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2021년 예산 지출 절약 분야 성과 시상금 100만 원을 각각 기부하며, 경기 사랑의열매 최초의 소방관 나눔리더가 됐다. 가입식에서 두 사람은 "시상금을 뜻깊게 사용해 기쁘다"며 "많은 이가 나눔에 동참하도록 나눔의 즐거움과 기쁨을 전파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발대식

경기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28일 다문화 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경기 사랑의열매가 총 1억 원으로 조성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했다가 이번에 재개했다. 수원·화성·오산 등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20가구 80명이 향후 1년 내에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일본·중국 등 8개국의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파주타임스>, 창간20주년 기념 이웃 돕기 성금 전달

<파주타임스>(대표 윤관호)가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1,05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칼럼집 판매 수익금과 이사들의 뜻을 모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 저소득 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윤관호 대표는 "새로운 10년을 향한 또 다른 전진을 시작하겠다"며 "다양한 나눔에 동참하는 <파주타임스>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선우 군, 나눔리더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김선우 군(8)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김선우 군은 어릴 적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은 김선우 군의 부모는 같은 처지의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기부금을 모아 아들의 생일 및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선우 군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원



천윤홍·안광진·이용호, 강릉시 나눔리더 단체 가입

지난 6월 30일 강원 사랑의열매는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진부점 천윤홍 대표와 광진육가공 안광진 대표, 이용호 공인중개사의 나눔리더 가입식을 진행했다. 나눔리더 3인의 가입 성금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돌봄, 교육, 상담,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릉시 사단법인 한울타리지원센터에 전달했으며, 강릉시 관내 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2022 신규 기획사업 전달식 및 수행 안내 교육 진행

강원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22일 2022년 신규 기획사업 전달식과 수행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기획 사업은 사회백신 프로젝트와 교육·자립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 등 총 3개 주제로,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진행된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로 다변화하는 복지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충북



에이스클럽(ACE Club), 공동생활 가정 지원금 전달
 LS일렉트릭 우수 협력 회사 모임인 에이스클럽(ACE Club)이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청주 지역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LS일렉트릭은 협력 회사와 함께 해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청주사업장은 농촌 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농산물 사내 판매, 마을회관 시설 보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이웃 돕기 성금 기탁
 충청북도의회가 충북 사랑의열매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성금 35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따뜻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이상욱 운영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착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골고루 전달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참전 유공자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충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23일 성보경 월남전 참전 용사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388호 준공식을 진행했다. 성보경 응은 “육군이 노병을 잊지 않고 여생을 보낼 집까지 새로 지어줘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충남 사랑의열매와 육군이 협력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참전 용사의 주택을 신축 또는 보수하는 사업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나눔명문기업 총남 15호 가입
 천안논산고속도로(주)(대표 임윤섭)가 충남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15호로 가입했다. 그동안 연말 나눔캠페인 및 장애인 단체 후원에 참여해온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3년간 총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임윤섭 대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충남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하이트진로(주) 특판전주지점, 어르신 건강증진 꾸러미 나눔
 하이트진로(주) 특판전주지점(지점장 임동식)이 전북 사랑의열매와 함께 보내 어르신을 위한 건강 증진 꾸러미를 선물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832만 원 상당의 꾸러미에는 마사지 건, 관절 영양제, 통증 패치 등을 담았으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총 216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완주 해외달 카페, 전북 3700호 착한가게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해외달 카페(대표 박기동)가 전북 3700호 착한가게로 가입했다. 박기동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착한가게 가입을 결심했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눔을 통해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



칠성재활용(주), 여수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지원
 칠성재활용(주)(대표 김민석)이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을 위한 성금 3,276만 9,000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전남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에 전달했으며, 이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 구입에 사용했다. 칠성재활용(주)은 지난 5월에도 장애인 이동 지원에 사용될 3,400만 원 상당의 스타리아를 후원한 바 있다.



장흥산업(주), 착한일터 가입으로 나눔 동참
 장흥산업(주)(대표 오준호, 김민숙)이 전남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장흥산업(주)은 장흥군에서 탄생한 첫 번째 착한일터로 43명의 직원이 기부에 동참한다. 또한 오준호·김민숙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삼성전자(주) 스마트시티, 다문화 가정 이증언어대회 지원
 삼성전자(주) 스마트시티(지원센터장 김현도)가 다문화 가정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실시한 비대면 걷기 봉사 활동 'Walk on, Give on'으로 마련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휴대폰 1대, 태블릿 PC 19대)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경상북도가족센터에서 개최하는 다문화 가정 이증언어대회에 지원했으며, 도내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천하정사 덕산 주지스님, 복지시설에 이불 160채 전달
 천하정사 덕산 주지스님(이홍철)이 경북 사랑의열매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입소생을 위한 2,000만 원 상당의 이불 160채를 기탁했다. 덕산 주지스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돼 힘들었을 복지시설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불을 전달했다"며 "하루빨리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박윤규치과의원 직원 7명, 시원한 여름 선물
 박윤규치과의원(원장 박윤규) 직원 7명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하며 경남 사랑의열매 시원한 여름 나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성금 700만 원은 도내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여름 나기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이번 가입은 박윤규 원장이 직원들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계획했다. 박 원장은 "무더운 여름을 보낼 이웃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나눔리더 가입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 사랑의열매 282호 나눔리더로 가입하고, 정기 기부에도 참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류학기 관장은 "경남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되고, 경남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제주



제주 착한가게 3333호 탄생
 제주 사랑의열매가 착한가게 3333호를 맞이했다. 주인공은 한울 제주부동산중개(대표 한병훈)다. 제주 착한가게는 2008년 1호 가입을 시작으로 2020년 3000호를 돌파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모금액은 59억 원을 넘겼다. 제주 사랑의열매 도나눔봉사단(단장 김동오)과 각 지역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홍보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발굴 활동이 원동력이 됐다.



성산 조개바탕 축제 디지털 모금 홍보 부스 운영
 제주 사랑의열매가 지난 7월 16일 서귀포시 광치기 해변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성산 조개바탕 축제'에서 디지털 모금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홍보했으며, 축제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역 축제 활성화에 맞춰 다양한 현장 홍보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세종 아너 소사이어티, 상반기 회원의 날 행사 개최
 지난 6월 22일 세종 사랑의열매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세종시 모금 현황과 아너 가입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아너 회원들은 정기 모임을 활성화하고 봉사 활동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아너 회원 증원을 통해 모임을 성장시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리농산물지킴이운동본부, 사랑의 우리 농산물 꾸러미 전달
 우리농산물지킴이운동본부가 사랑의 우리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통해 7,500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1,500박스를 세종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감자·양파·사과 등 총 13종의 농산물을 관내 32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교육·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과 장애인은 물론 비구직 청년, 어르신, 다문화 가정까지 많은 이웃이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배우고 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홀로 설 그날을 위해 배움에 열정을 다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낸다.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새 나라, 새 일꾼
신입 직원 김예설 Yes, sir!

6화 - 첫술에 배부르랴!

콜라보레이션 배지가 출시 하루 만에!!

완판입니다!

축하해요! 와아!!

잘됐네요! 우리 보관용으로는 몇 개 챙겼어요?

에? 따로 안 챙겼는데...

코코아프렌즈 측에 문의해보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매진되어 여유분을 챙기지 못했어요

헉... 남은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예설씨는 추진력이 좋지만 꼼꼼함이 떨어져요.

예설 씨! 배지 수익금으로 쪽방촌 주민분들께 쿨매트 전달하기로 했죠?

에.. 아 네!

다음 주 금요일 쪽방상담소 근처 공원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르릉~!

네... 공장에 불량품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담당자가 보관용을 챙기지 않은 게 말이 돼요?

금요일

예설 씨... 이거 맞아?

싸아아~!

살려주세요 팀장님..!

비가 많이 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쪽방상담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상담소 안에도 나눠드릴 공간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죠, 예설 씨?

앞으로 더 꼼꼼히, 다양한 상황도 예측해가면서 일합시다! 고생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화에 계속...

글·그림 오동진